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협소식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TEL 02•777•2013 / 757•7851 FAX 02•778•7427

<http://www.clak.or.kr> E-mail: clak@catholic.or.kr

발행일 : 2011. 7. 15 발행인 : 최홍준



베론성지 최양업 신부 동상



실는 순서

1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3
2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6
>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7
>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8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9
>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10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1
>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2
>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3
>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15
3 한국평협 회원 단체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16
>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16
>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16
>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	17
> 한국가톨릭의사협회	17
> 레지오 마리아 광주 세나투스	18
> 레지오 마리아 대구 세나투스	19
4 평협회장 단상 / 묵주기도: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들	20
5 인터뷰 人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정해정 회장	23
6 언론인 칼럼 / 너와나, 무엇이 다른가	26
7 교황님 말씀 / 삼종기도 강론	28



알림

◎ 3차 한국평협 상임위원회가 오는 9월 30일(금)~10월 1일(토) 서울대교구 베네딕토 피정의 집(서울 장충동 소재)에서 개최됩니다.



1 한국평협 제2차 상임위원회서 시복 기도운동 시작 2012년 한국 평신도대회 개최키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사제 민병택)는 지난 7월 9일 원주교구 배론성지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후 '하느님의 종' 한국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 미사를 최양업 신부 묘소 앞에서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 주례로 봉헌했다.

이날 배론성지 주임 여진천 신부의 '최양업 신부의 삶'에 대한 강의에 이어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주교구 사목국장이며 원주평협 담당사제인 김민규 신부가 함께한 가운데 각 교구에서 아시아 평신도 대회 후속으로 교구 평신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어 2012년 평신도대회에 대한 세부내용을 확정해서 올 주교회의의 가을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국 순교자 124위와 증거자 최양업 신부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운동은 실무위원회를 통해 계획을 보완하고, 오는 9월 4일에 대전교구 여사울 성지에서 합덕, 신리를 거쳐 솔피까지 진행되는 순교자 현양 도보 순례에 한국평협이 함께 참여해 기도운동의 시발점으로 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고 많이 참석하기로 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는 또한 한국평협 인명록에 대한 개요를 발표하고 각 교구에 필요한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상임위원회 첫날 개막미사를 집전한 원주교구장 김지석 주교는 강론을 통해 아시아 어느 곳보다 한국 평신도의 역할이 자랑스럽고 발전적임을 격려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은 계속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평신도 사제직으로서 이 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색하고 고민해야 한다"면서 "평신도가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스스로 알고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8일 오후 이곳에서 주교회의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가 주관한 세미나에 함께했다. "아시아 평신도대회와 한국 평신도 사도직운동"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오용석 소장은 '2010 아시아 평신도 대회의 소명과 실천' 발제에서 지난해 아시아 대회에서 제기된 아시아 교회의 소명과 그 안에서 한국 교회 평신도들이 해야 할 실천적 활동에 적극성을 가지고, 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에 앞장 설 것을 요청했다. 오 교수는 이어 「한국평협 40주년 백서」에 대한 종합 보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진행사항 등을 발표했다.

세미나는 계속해서 주교회의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최홍준 한국평협 회장이 '한국교회 평신도운동의 전망과 과제=지난 세미나들의 주제, 내용 등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주교회의가 평협의 명칭 문제와 관련해 오랜 동안 관심을 가져왔고, 평협 또한 여러 차례 세미나 등을 개최해 오면서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로 고치는 문제를 논의해 온 사실을 발표했으며, 주교회의의 평신도사도직 위원회 위원이며 가톨릭대학교 교수인 성심수녀회 최혜영 수녀는 '아시아 교회 안에서의 성심 수녀회'라는 발제를 통해 성심수녀회가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으며,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와 다문화 다종교와의 대화, 토착화 등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제1차 상임위원회, 시복 시성 기도운동 펼치기로 결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오는 7월부터 각 교구 평협을 연결하면서 릴레이로 전국 성지 도보순례기도를 바치기로 했다. 평협은 현재 시성성에 시복 청원 중인 '하느님의 종' 한국순교자 윤지충 바오로 외 123위와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복시성을 위해 각 교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복 시성 노력에 하나를 더해 연결고리를 통한 순례기도를 바치고, 평신도들의 뜨거운 염원을 모아 그 결실을 바티칸에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한국평협은 지난 5월 27일부터 1박 2일로 안동교구 농은수련원에서 전국 13개 교구평협과 5개 전국 상임단체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 주례 미사와 특강을 들은 다음 2011년도 제1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현재 국내 각 교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복시성을 위한 활동을 집약하는 릴레이 도보 순례기도를 바치자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이는 지난 1970년대 103위 순교복자들의 시성을 위한 기도운동을 점화한 데에 크게 이바지한 한국평협의 전통을 계승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교구 평협 회장과 단체장 등 상임위원들은 교구장상들과 일치하는 가운데 순교자현양회 등 관련 단체들과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안동교구 사목국장(평협 담당사제) 안상기 신부가 함께한 이번 상임위원회 참석자들은 지난 4월 말 로마를 방문한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장 박정일 주교의 교황청 시성성장관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과의 만남에서 “시복을 위한 모든 절차는 마쳤으며 이제 한국교회 열망이 지속적으로 전달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을 전해 듣고 시복시성 기도운동을 좀 더 조직적이고 뜨거운 열기로 전개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7월 8-9일 원주교구 배론성지에서 열리는 제2차 상임위원회를 계기로 평신도들이 앞장서서 전국 성지를 도보로 순례하며 릴레이로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기로 하는 한편 순례기도의 과정과 결과를 영상물 등 각종 자료로 정리해 바티칸을 방문해 전달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은 회장단에 위임했다. 상임위원회는 또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한 아시아 가톨릭평신도대회 후속 한국평신도대회를 개최하는 데에 뜻을 같이 하고, 원주교구에서 열릴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주교회의 평신도사도직위원회(위원장: 염수정 주교, 총무: 민병덕 신부)와 함께 ‘아시아교회와 평신도사도직운동’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지난 4월 실시기로 했으나 잠정 연기했던 ‘평협 실무자 연수’를 각 교구평협의 회장과 사무국장, 사도직 단체 대표들이 직원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제5회 우리성가 작곡공모 수상작 선정

한국평협은 제5회 우리성가 작곡공모를 통해 6작품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최우수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우수상 3편과 장려상 3편을 선정했는데 수상작은 다음과 같다. ▲우수상 김영조(스테파노, 인천 중3동성당), 윤미경(아네스, 인천 신천동성당), 장희선(세실리아, 서울 한강성당), ▲장려상 박재서(프란치스코, 서울 대치2동성당), 박현상(다니엘, 서울 길음동성당), 정동현(베드로, 서울 중앙동성당).

이번 작곡 공모는 한국평협이 지난해 실시한 제5회 우리성가 노랫말 심사에서 선정된 노랫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시상식은 오는 7월 12일 저녁 명동대성당에서 수상작 연주 미사(주례:염수정 주교)를 통해 거행 됐으며, 이번에 뽑힌 곡들은 오는 11월 7일 열리는 2011년 평신도주일 기념, 제7회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에서도 연주된다.

한국평협이 “우리 정서에 맞는 아름답고 친근한 성가를 만들어 신자들이 하느님과 더욱 일치토록 함으로써 전례를 토착화하고 활성화 하자”는 취지아래 지난 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진 이번 작곡 공모에는 총56점(34명)이 응모해 우리성가 창작에 대한 신자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다. 한국평협은 이번에 국내음악계의 중진 신자 작곡가들로 심사위원을 구성, 엄정한 심사를 거쳐 5월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1 아시아 복음화의 선두에 설 한국교회의 사명 확인 - 한국평협 아시아 평신도대회 후속 워크숍

한국평협은 지난 5월 13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작년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에서 나눴던 발표와 사도좌의 가르침을 상기하고 확산하기 위한 '아시아 평신도대회 후속 워크숍'을 열고 각 교구 평협과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했다.

이날 첫 순서는 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소장인 오용석 교수가 작년 대회에서 발표된 발제문과 토론들을 요약하여 '2010 아시아 가톨릭 평신도대회의 결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고, 이어 각 교구 평협과 단체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경성대 명예교수인 오용석 소장은 "사도좌에서 한국을 아시아 평신도대회의 개최지로 정한 것은 한국교회가 지닌 아시아교회 복음화의 사명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섭리"라면서 "한국의 평신도들이 더욱 겸손하게 소명을 받아들이고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크숍 이후 각 교구 평협은 교구 평신도대회를 개최하고, 내년도에 개최 예정인 한국 평신도대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2 “평협인을 찾습니다.”

- 한국평협 인명록 서비스를 위한 개발에 착수

그 동안 평협에서 봉사했던 임원들의 기록을 보존 관리하고, 활동 내용을 증명해 주는 시스템을 만든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올해 초 정기총회를 통해 결정된 바와 같이 그간 한국평협의 창립 이후 활동해 온 모든 인적자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해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원하는 경우 개인별 활동 내용을 증명해주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웹서비스 '한국평협 인명록'을 개발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확정했다.

한국평협은 1968년 창립부터 현재까지 봉사해 온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평협 인명록'에 실리게 될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며, 그 안에 담기게 될 내용은 사진과 함께 주요 개인정보와, 평협에서 활동했던 직책, 활동기간 등이다. 모든 인명록 데이터는 접근 권한별 등급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며, 7~8월 데이터를 수집하고 9~10월 자료 입력 후에 11월 베타 테스트를 거치면 늦어도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과거 각 교구에서 활동했던 신자들은 각 교구평협 사무국이나 한국평협 사무국(☎ 02)-777-2013, 담당: 여효경 세실리아)으로 연락하시기 바란다.



서울대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칙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열려

서울대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최홍준, 담당사제 민병덕)는 올해 초 열린 제41회 정기총회의 회칙 변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결의에 따른 회칙 변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5월 19일과 6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회합을 열었다. 주교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5월 첫 모임에 참석한 서울대학교구 총대리 염수정 주교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평신도 사도직 활동이 더 활발히 일어아 하는 시대적 요청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며 평협이 “평신도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평협 담당사제 민병덕 신부도 함께한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다룰 현안을 검토했다.

제2차 회의는 6월 30일 서울평협 하상방에서 열려 서울평협 회칙을 함께 읽고 교회법적인 문제 제기 등이 있었다. 서울평협의 회칙 개정 특별위원회는 작년 추계 주교회의 정기총회 이후 제기된 한국평협의 정체성과 명칭의 변경 문제로 올 초 한국평협의 명칭이 변경된 이후, 서울평협의 명칭 역시 변경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로 인해 지난 총회에서 발의된 것으로, 이 기회에 평협의 정체성을 찾아 합당한 회칙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구성됐다. 이 특별위원회를 통해 서울평협은 명칭의 변경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의 개편과 활동의 점검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으며, 회칙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그 한시적 활동을 마치게 된다.

서울평협 회칙개정 특별위원회는 평협 회장단 일부와 교회법, 교회사, 법률 전문가, 단체장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은 아래와 같다.

△위원장: 최홍준 평협 회장

△부위원장: 권경수 평협 부회장

△위원: ▲평협대표: 조기연 부회장, 김길성 사무총장, 오용석 사회사도직연구소장 ▲단체대표: 김은배 회장(성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이병순 회장(연령회 연합회), 최정기 회장(가톨릭 언론인회) ▲성직자대표: 홍근표 신부(사목국 부국장, 단체사목담당), 박동균 신부(반포4동 주

임, 교회법) ▲외부인사: 조광(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사), 윤형한(변호사) ▲서기: 유영훈 사무국장



‘인터넷 선교’ 주제로 선교포럼 열려

서울대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지난 6월 11일 오후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1층 강당에서 ‘인터넷 선교’를 주제로 제2차 선교포럼을 열고 날로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효과적으로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학교구 각 본당 선교분과장과 위원 12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구 전산실 부국장인 최양호 신부의 강의를 마련됐는데, 최 신부는 “요즘 인터넷에 연결되어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2009년도 인터넷 사용률이 72%에 달할 정도로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한다”고 전하고, “디지털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평협이 ‘복음화2020운동’의 달성을 위해 매년 3~4차례 마련하고 있는 선교포럼은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서울대학교구 내 각 본당의 선교담당자들을 모아 실시하고 있다.





단체연락사무소 '하상방' 개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교회운동·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중점사업으로 세우고 세부내용으로 사무실이 없는 단체들을 위한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사무국을 리모델링해 정하상 성인의 이름을 붙인 '하상방'을 개설했으며, 하상방은 단체 연락사무소로서의 기능을 위해 우편함을 비치해 단체들의 편의를 돕고, 30명 규모의 회의와 교육을 위한 장소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컴퓨터와 프로젝터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7월 13일 오후 염수정 주교 주례로 축복식을 거행했다.



헌혈과 장기기증희망이 현장에서 이루어졌고 대전평협의 한생명운동을 지지하는 지지서명 부스가 설치됐다. 그밖에 먹거리장터와 우리농을 비롯한 교구 단체와 기관에서 생산하는 생산품 판매,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CMB대전방송과 협조로 이루어진 '열전동네방네' 프로그램 참여는 '천주교'의 생명사랑과 나눔 정신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고 특별히 교구장 유흥식 주교의 격의 없는 사랑의 모습이 전파를 통해 보여짐으로써 '열전동네방네'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한층 격상시켰다는 후문이다.

카리타스 축제는 대전평협이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2008년부터 해마다 다양한 주제를 정해 교구민들과 소통하는 사랑의 축제이다.

청주교구 평협과 대전교구 평협 친선 만남의 날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2011 생명과 사랑나눔 대축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홍거, 담당사제 임기선)는 5월 28일 10시부터 둔산동 샘머리공원에서 약 2,500명의 교우와 일반인이 참여한 가운데 '2011 카리타스 생명과 사랑나눔 대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사목기획국, 청소년사목국, 사회사목국의 후원과 대전평협의 모후 레지아, 여성연합회의 협조로 이뤄진 축제는 크게 생명나눔터, 체험나눔터, 나눔장터로 운영됐다.

어린이사랑장터를 비롯한 어린이미사와 어린이체험프로그램 등 어린이와 함께한 프로그램이 많은 어린이들의 참여로 푸른 5월을 느끼게 해줬다.

대전교구 평협과 청주교구 평협 (회장 정업택)은 2011년 6월 4일 대전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친선 단합대회를 가졌다.

이날 단합대회는 손병익 신부, 임기선 신부, 양희창 신부와 함께 미사를 봉헌하고 식사와 휴식을 취한 후 실내체육관에서 배구시합을 가졌다.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임을 가지던 중 교구장 유흥식 주교의 깜짝 방문으로 더욱 더 분위기는 고조됐다. 유주교는 두 평협 상임위원들에게 따듯한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배구시합을 관람하기도 했다. 대전평협에서는 서천장애인복지관에서 만든 서천김과 한생명 축제 기념품을 선물했고 청주평협에서는 '최양업신부 서



한집'을 선물하며 내년을 기약하고 아쉬운 작별을 했다.
 두 평협상임위원들의 만남의 장은 2010년 청주평협이 먼저 청주교구청으로 대전평협을 초대한데서 비롯됐다. 두 평협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만남의 장이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교구설정 50주년 기념 116개 본당 도보순례 개최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문기득, 담당사제 김용환)는 교구설정 50주년 기념 116개 본당 도보순례를 개최해 지난 5월 28일 통진·하성을 순례하고 29일 강화·온수·본당에서 출발한 마지막도보순례는 갑곶성지를 종착점으로 78일 도보순례의 긴 여정을 마쳤다.

마지막 순례에 함께 참여한 사무처장 김용환 신부는 파견미사 강론 중에 다 “이루어냈다”라고 순례자들을 격려하며 축하를 전했고 그동안 참여했던 신자들은 무한한 자

공심과 아쉬운 마음이 교차함을 느꼈다. 이번 순례에는 총75명의 완주자를 포함해 수많은 신자가 참여해 인천교구 설정 50주년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다.

나길모 주교 금경축일 미사 및 축하행사

2011년 6월 11일 답동주교좌성당에서 인천교구 초대 교구장 나길모 주교의 주교서품 50주년 금경축 미사가 봉헌됐다. 이날 평협 담당 김용환 신부와 문기득 회장의 진행과 주관으로 회장단 및 총무부서와 각 부서의 담당 위원장들은 뜻 깊은 행사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진행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나주교는 강론에서 “언제나 인천교구를 사랑하고 교구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다”고 감사를 전했으며, 이어진 축하식에서는 박문유치원생을 비롯해 박문초등학생과 소명여중생 합주, 소명여중고생의 합창, 교구 가톨릭 혼성 합창단의 축하 공연을 끝으로 평협 총무부에서 준비한 식사와 함께 기쁨을 함께 나눴다.



교구 50주년 기념미사와 축하행사

2011년 6월 6일 인천교구 설정 50주년을 맞아 4만여 명의 교구민이 참석한 이날 미사는 교구장 최기산 주교와 전임 교구장 나길모 주교, 총대리 정신철 보좌주교, 주한 교황대사와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 교구 사제단이 공동 집전하였고, 50주년 기수단을 필두로 가톨릭스카우트, 116개 본당기가 설립 순서대로 입장하였으며, 이어 교구 46개 단체기와 50주년 본당 도보순례단, 수도자, 복사단, 신학생들 그리고 교구 사제단과 한국 천주교회 주교단 이 입장했다. 감사미사 중 교구 50년사와 본당 순례를 마친



바다의 별 성모상, 묵주기도 1억 5천만 단, 영성센터, 마리스텔라와 청연 성당 등 교구에 설립될 센터 조감도, 80여 개의 사회복지 기관들과 교구가 50주년을 맞아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과 서예 성경 필사본이 봉헌됐다. 영성체 후에는 5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한 모든 신자들에게 전대사가 수여됐으며 감사미사 봉헌 후 평협과 여성연합회에서 진행한 축하연에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상반기 상임위원, 사무국임원 연수개최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변영철, 영성지도 신부 문희중)는 5월 6일부터 1박 2일 동안 평협 상임위원과 평협 사무국임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상반기 연수를 가졌다.

오후에 교구청에 모여 인천시 영흥구에 위치한 오션빌 연수원에 도착한 평협임원들은 평화, 나눔, 화합이라는 시간별 주제에 맞추어 대리구평협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각각의 대리구내 활동상황과 대리구별 고충과 방안에 대한 진지한 나눔의 시간은 공통된 부분은 함께 공유하고 환경적으로 다른 대리구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나눔 시간에 이루어진 아가페에서는 각자가 뽑은 '부르심, 십자가, 평화, 약속의 땅'이란 주제와 성경구절에 맞추어 묵상 후 환하게 밝힌 초와 함께 봉사자로서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갯벌 체험이 예정되었으나 우천으로 취소하

고, '남양성모성지'를 방문해 성모님의 달을 맞아 성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변영철 평협회장은 2개 대리구에서 참석하지 못한 것에 아쉬운 마음을 전하면서, "모처럼 이런 자리를 통해 대리구 회장님들과 진솔한 자리를 함께 하고 서로 결속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문신부는 "50주년을 준비하는 교구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이런 시간을 이용해 화합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됨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적극 협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단체 소식

가톨릭 경제인회 일일피정

수원교구 가톨릭 경제인회 일일 피정이 지난 6월 18일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몬띠 피정의 집에서 실시됐다. '경제인으로서의 그리스도적 삶'이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피정은 강의와 강의나눔, 단체기도, 2012년 복음화 계획 토의에 이어 미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교구 내 경제인회 회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의를 맡은 교구 가정사목연구소장 송영오 신부는 '종과 주인의 비유' 말씀을 설명하며 '진정한 봉사'에 대해 강조했다.

수원교구 가톨릭 경제인회 영성지도 이영배 신부는 경제인회 회원들이 "경제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돌아보



게 하기 위해 피정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경제인들이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의 피정이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원교구 경제인회에서는 매년 상반기에는 피정을 하반기에는 연수를 실시하여, 회원들의 영성생활과 교류 확대를 돕고 있다.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대구평협 산하 문화예술단체들

교구 100주년 기념 경축대회 전시회에 대거 참여

교구 100주년 기념 경축대회 전시회에 대거 참여 대구대교구 10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 행사들이 연이어 펼쳐지는 가운데 ‘은총의 100년, 희망의 100년’이라는 주제 아래 교구 평협 산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공예, 글·그림, 닥종이 인형, 도예, 미술, 사진, 전례꽃꽂이까지 7개 분야에서 작가 219명의 작품 370점을 5월 8일부터 14일까지 교구청 내 가톨릭교육원 등지에서 전시했다. 전시회의 개회식 행사는 5월 10일 가톨릭교육원 다동 앞에서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와 총대리 이용길 신부, 경축대회 실무위원장 하성호 신부, 관리국장 장영일 신부, 미술가회 담당 김도울 신부, 사목국장 김영호 신부, 경축대회 전시회 담당위원장 이진호 신부, 김종해 교구 평협회장, 각 분야별 실무위원들과 작품을 출품한 작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전시회 준비위원회 이영구 총무의 사회, 전시회 준비위원회 조기현 회장의 시작기도, 전시회 담당위원장 이진호 신부의 개회식 선언,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의 인사말, 테이프와 케이크 커팅, 음식 나눔, 전시회 관람 순으로 이어졌다.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는 전시회 개회식 인사말에서 “100년에 한 번 오는 의미 있는 전시회를 열게 된 오늘, 지난 100년 동안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살아갈 일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100주년을 빛내는 이번 전시회에 작품을 내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있어 100주년이 더욱 빛나는 만큼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기를 기도드린다.”고 덧붙였다. 교구장



의 인사말이 끝난 뒤 교구장 일행과 내빈들은 전례꽃꽂이 전시회장인 가톨릭교육원 다동으로 자리를 옮겨 축하케이크를 자르고 건배를 하고 전시 작품 등을 둘러보았다. 도예 분야에서는 김종숙 작가가 출품한 역대 교구장 흉상 작품이 눈길을 끌었는데, 전시회를 관람하던 조환길 대주교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작품 앞에서 작가와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닥종이 인형 작가 이영숙 씨 역시 역대 교구장의 모습을 닥종이로 형상화하여 한눈에 볼 수 있게 전시했다. 특히 이영숙 씨는 현 교구장과 교구민들이 손에 손을 잡고 화합하고 일치하는 모습을 ‘다시 새롭게 2011, Renew 2011’이라는 주제로 작품화하여 ‘새 시대, 새 복음화’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을 표현했다. 가톨릭 사진가회(회장 조기현, 담당사제 장효원)는 대구대교구의 초창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놓칠 수 없는 굵직굵직한 사건의 현장 속으로 관람객을 초대했다. 조기현 회장은 “100년의 역사를 사진 몇 장으로 표현하기가 무척 힘들었지만 교구 역사와 관련한 사진 106점과 회원작품 44점 등 전체 150점을 소개했다.”면서 “이런 뜻 깊은 전시회를 통해 교회역사에 대한 재인식과 더불어 신앙심도 깊어지고 봉사활동도 더 열심히 하는 다짐의 기회가 됐다”고 했다.

가톨릭 문인회(회장 윤장근, 담당사제 이정우)는 시인이기도 한 전임 교구장 이문희 대주교의 시를 비롯해 문인회 담당 이정우 신부의 시 등 46명 시인의 시를 그림과 함께 전시했다. 글·그림전 역시 ‘은총의 100년, 희망의 100년’이라는 주제에 맞게 100가지 주제로 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46편의 시를 출품하였고, 시인들의 작품마다 정성 들여 쓴 이태수 시인의 손 글씨가 돋보였다.

가톨릭 미술가회(회장 서진국, 담당사제 김도울)도 100주년에 맞는 주제들로 작업하여 작품을 선보였으며, 김도울 담당 신부의 작품 등 회원 개개인이 한 작품씩 모두



35점을 출품했다. 특히 못으로 십자가의 형상을 표현한 예수성심시녀회 소속 김선에 수녀의 ‘처음과 같이 항상 이제와 영원히’ 라는 작품도 눈에 띄었다. 전례꽃꽂이연구회(회장 이미숙, 담당사제 나기정)는 이번 전시회에 앞서 도록에 소개할 작품의 사진촬영을 위해 전시회 전에 회원들이 미리 작품을 만들었으며, 개막식에 맞춰서는 한 번 더 작품을 만들어 출품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공예 분야에서도 목주를 비롯한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김영숙 작가의 ‘계산성당’ 미니어처 작품과 이영구, 이화연 부부의 메탈엠보싱 기법의 작품 등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100주년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고 경축하기 위해 교구의 예술가들이 10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전시회 담당위원장 이진호 신부는 “작품을 통하여 지난 100년의 감사의 역사를 보면서, 새로운 100년을 위한 희망의 역사를 발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번 전시회는 교구평협 산하 단체에서 활동하는 각 분야별 문화예술작가들이 100주년이라는 공통 주제를 표현한 작품을 한데 선보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한편, 이들 작가들의 작품을 모두 모아 《은총의 100년, 희망의 100년》이라 이름 붙인 작품집도 출간했다.

제36회 교구장기 교회 및 직장 테니스대회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종해, 담당사제 김영호)가 주최하고 가톨릭체육인회가 주관한 제36회 교구장기 교회 및 직장 테니스대회가 2011년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가톨릭대학교 하양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교구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참가 규모를 확대했다. 예년 대회에는 잘하는 팀 못하는 팀 구분 없이 교회별로 두 팀씩 참가하였는데 올해는 5년 이내에 우승, 준우승 팀과 선수출신 선수 한명인 팀은 A그룹으로 묶고 그 외에 팀은 B그룹으로 하여 교회 내 순수 동호인들이 더 많이 참가하도록 했고, 개인전도 세분화 하여 많은 팀이 참석하도록 유도한 대회였다. 그리고 하루에 개인전 단체전을 다 치렀던 종전대회와는 달리 개인전과 단체전을 날짜를 나눠 개최해 단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 중 개인전에 참가하고 싶었던 선수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중복 출전을 허용했다.

교회대항(A그룹 7팀, B그룹 18팀) 직장대항 13팀, 개인대항(여성 5팀, 남성 청년부 6팀, 남성 장년부 5팀, 남

성 실버부 5팀, 부부 잉꼬부 3팀, 부부 원앙부 8팀) 총 70팀이 참석했다.

28일 토요일에 개인전을 치렀고 29일은 사고 없이 공정한 경기를 하느님께 바라는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했고 개회식을 치른 후 단체전 게임을 시작했다. 점심시간 전에 조환길 대구교님과 게임을 뛰지 않는 응원단들과 함께 박터트리기를 하는 등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큰 사고 없이 공정하게 게임을 치른 대회였다.

이번 대회에서는 범어성당과 지곡성당이 각각 교회대항에서 우승했고 직장팀에서는 무학고등학교가 우승했다.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제2기 주일학교 아버지 아카데미

- 주님과 함께 주일학교 아버지로 살아갑시다! -

부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해권, 담당 손삼석 주교)는 6월 26일 오전 9시부터 교구청 5층 대강당에서 ‘제2기 주일학교 아버지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 실시한 제2기에서는 박종은 기수회장을 포함해 25명이 참가하여 주일학교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과 소명을 함께 고민해 보고 우리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신앙교육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다짐했다. 이 날 교육은 청소년사목국 부국장 권동국 신부의 주례로 그리스도성체성혈대축일 미사로 마무리 됐다.

시작전례에서 김해권 회장은 “더 이상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출발은 미미하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실천으로 아버지 아카데미 활동을 한국교회 전



체에 실천운동으로 확대해가자”고 참가자를 격려했다. 부산평협은 금년에 한 차례 아버지 아카데미를 더 개최할 예정이며 범 교구적 신앙교육활동으로 승화시켜나가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그랏즈-마산교구 자매결연 40주년 기념행사

마산교구는 오스트리아 그랏즈교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지 40주년을 맞고 있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총회장 강신근, 담당사제 이형수 몬시놀)은 『그랏즈-마산교구 자매결연 40주년 기념행사』를 교구로부터 위임받아 주관했다.

그랏즈교구 만프레드 슈스터(Mons. Mag Manfred Schuster) 몬시놀 자매위원장과 평신도대표 이블린 시베르트(Evelyn Siebert) 비롯한 대표단과 교구장 안명옥 주교와 교구사제단 대표, 그랏즈위원회 그리고 본당회장과 교구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 11일 토요일 주교좌 양덕동대성당에서 40주년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1부는 교구장 안명옥 주교 주례의 기념미사와 환영식, 제2부 만찬연에서는 거룩한 표징 출판기념회, 40주년 영상묵상, 환영무용, 건배축제, 만찬으로 상호 친교를 나누고 다양한 교류를 통한 은총과 배움을 축하하면서 거룩한 표징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축하사절단은 지난 6월9일 교구평협의 환영을 받으며 내한하여, 교구장님을 예방하고 그랏즈교구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교구 내 문산본당을 방문하고 사회복지단체인 생명터와 로렘의 집을 방문하는 등 교구의 생명운동에

관심을 보였다.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그랏즈에서 수학한 교구 내 사제들과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비전으로 사제단과 더불어 평신도의 교류가 더욱 활성화하여, 초창기 마산교구가 그랏즈 자매교구로부터 영신적, 물질적 도움을 넘치도록 받았지만 이제는 선진화된 한국의 교회 특히 마산교구는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교회로 태어나기를 다짐했다. 참고로 마산교구는 설정 45주년을 맞았으며 그랏즈교구는 교구설정 793년을 맞고 있다. 엄청난 하느님의 역사적 은총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교구평협 춘계 상임위원회의

마산교구 평협은 지난 6월 3일 춘계 교구평협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에 선포한 ‘평신도의 좋은 책 읽기 운동 추천도서’를 묵상하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 제2회 독후감쓰기의 홍보를 위한 방법과 그랏즈-마산교구 자매결연 40주년 기념행사의 주관에 따른 중점의제를 다루고 오는 11월 평신도주일을 준비하는 평신도대회를 위한 산상미사에 대한 부제를 세심하게 준비하고 검토하는 회의로 개최됐다.

특히 교구에서 위임받은 ‘그랏즈-마산교구 자매결연 40주년 기념행사’에 빈틈없는 기획과 준비와 더불어 본당회장과 교구단체장의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인 기념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신도사도직의 힘을 보여주기로 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운동은 먼저 평신도지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본당 및 교구단체에서 사명감으로 홍보할 수 있는 책임을 강조했으며, 본당신부님에게 협



조를 의뢰하여 보다 많은 신자들이 복음화를 위한 영적독서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독후감쓰기 공모전에 평신도의 지도자들이 출선수범하여 참여할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국 최초의 미사봉헌지인 진해왜성에서 매년 개최되는 산상미사를 통한 평신도대회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중 후반기의 사업을 준비하고 점검하는 실무적 회의로 진행했다.



6월 상임위원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는 6월 11일 제2차 상임위원회의를 갖고 순교자현양 미사, 선교대회 개최, 광주평협 14호 발행 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토의했다.



지구 소식

서부지구평협 제8회 한마음체육대회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제와 평신도 어울림 한마당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서정권, 담당사제 박성열)는 5월 10일 화정초등학교 강당에서 특수사목을 담당하는 교구 사제들을 초대하여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뜻으로 사제와 평신도가 함께 운동경기를 하며 어울리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서부지구평협(회장 남청용, 담당사제 김재기)은 5월 1일 평생교육원 운동장에서 서부지구 내 10개 본당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제, 수도자, 평신도가 일체가 되어 12인 다리 묶고 릴레이, 단체 공 튀기기, 가위바위보 릴레이 등 게임을 하면서 즐거운 한마당 자리가 됐다.



목포지구평협 성가합창제

목포지구평협(회장 김영찬, 담당사제 장세현)은 6월



29일 목포시민문화센터 대공연장에서 목포지구 내 8개 본당의 11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성가합창제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히 합창을 위한 무대가 설치되어 본당에서의 열악한 환경과는 달리 놀랄만한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어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번 합창제를 통해 본당의 성가대의 한결 높은 일치와 모습과 성가단원들에게 자긍심 고취의 시간이 됐고 목포지구평협의 봉사정신에 대한 높은 평가가 있었다.



지구평협 체육대회 및 산행

지구별 체육대회와 산행이 개최됐다. 5월 10일에는 순천지구에서 300여명이 참석하여 한마음 체육대회를, 22일에는 광주광산지구지구에서 500여명이 참석하여 체육대회와 광주동부지구 단합 산행이 노대동 분적산에서 200여명이 참석하여 개최됐다.

단체 소식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피정

파티마의 세계사도직(회장 김재중, 담당사제 김종대)은



5월 2일 임동주교좌성당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정을 가졌다. 이날 차동엽 신부의 '그대로 세계 이루어지소서' 라는 주제의 특강이 있었고 파견미사는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가 집전했다.

광주춘계성령대회

성령봉사자회(회장 박청광, 담당사제 정대영)는 5월 16일 염주동성당에서 광주춘계성령대회를 개최하여 "기쁨과 은혜의 영성"이라는 최민석(하남동성당 주임) 신부의 열강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됐다.

여성산악인회 산행미사

여성산악인회(회장 임현신, 담당사제 박성열)는 6월 17일 회원들이 시각장애우 40여 명과 함께 산에 올라 담당사제 집전으로 산행미사를 봉헌했다. 또한 5월 2일에는 임원연수회를 충북 천안 베어트리파크로 다녀왔고, 5월 24일에는 평생교육원 풀메기작업 봉사를 했다.



운전기사사도회 창립기념행사

운전기사사도회(회장 김현철, 담당사제 오재선)는 5월





25일 평생교육원에서 창립 22주년을 맞아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요한 15,16)’라는 주제로 총회와 감사미사봉헌, 체육행사를 가졌다.

강수근 신부의 국악성가 배움터

한소리합창단(단장 이찬희, 담당사제 조영대)은 6월 18~19일 광주 명상의집에서 95명의 참가자와 함께 국악성가 배움터를 열었다. 강수근 신부의 지도로 국악미사곡과 다양한 국악성가, 전례 안에서의 성가, 국악미사곡 장구 반주 기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흥겨운 배움 한마당이 됐다. 또한 국악성가의 맛을 살려 잘 부를 수 있도록 배움터를 연중 2회 열어달라는 의견과 지휘자와 반주자의 교육과정도 개설해 달라는 등등 많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교)을 시작으로 ‘교회의 사명과 사회교리’(전 광주대교구장 최창무 대주교), ‘환경보호와 공동책임’(대구대교구 오산 자연학교장 정홍규 신부), ‘인간과 인권(인간의 존엄성)’(루주 제이콥 쿠와카드 몬시뇰)등 중량감 있는 저명인사들의 강의를 펼쳐졌다. 강우일 주교는 수료식미사 강론에서 “오랜 교육을 끝내고 수료식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번 사회교리학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을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한다”며 “오늘 아침 사려니 숲길을 걸었는데 새소리와 맑은 공기 그리고 울창한 숲을 보며 이렇게 아름다운 제주에 살게 해주신 하느님께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드렸다. 우리는 하느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오랫동안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감발표에 나선 김철범(서귀포본당), 김효순(신제주본당)씨는 “오랫동안 성당에 못 나와 신앙심이 점점 시들어진 나에게 주님은 이번 사회교리학교를 통해 눈이 보이고 귀가 열리는 기회를 주셨다”고 고백했다. 사회교리학교를 주관한 평협 문덕영 회장은 “처음에는 100명 정도만 신청해도 성공이라 생각했는데 300여 명이 신청해 장소 문제로 당초 가톨릭회관에서 하려던 계획을 연동성당으로 바꿨다”며 “내년에 제2기 사회교리학교를 개설해 제주교구의 많은 신자들이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개근상을 받은 임시홍 형제는 “제주에서는 훌륭한 분들의 강의를 듣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번 교육을 통해서 그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자랑스러워했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사회교리학교 수료식 가져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문덕영, 담당사제 고병수) 주관으로 실시한 ‘제1기 사회교리학교’ 수료식을 6월 20일 연동성당에서 가졌다. 지난 3월 7일 개교하여 14주 과정의 교육을 마친 252명의 수료생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어린학생처럼 설레임과 기대감속에 차분한 마음으로 수료식을 함께했다. 이번 1기 사회교리학교는 297명이 입학하여 252명이 수료했고 특히 141명이 개근해 그 열기를 새삼 느끼게 했다. 제1기 사회교리학교는 ‘인류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계획’(제주대주교 강우일 주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제2차 간호영성 포럼 개최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회장 채계순 수녀)에서는 회원들의 간호영성 강화를 통한 질 높은 영적 간호실현을 위한 제2차 간호영성포럼을 2011년 6월 2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별관 2층 임상강의실에서 전국의 10개 교구 가톨릭간호사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학술위원장이인 이숙정 교수의 진행으로 제1강의는 홍성남 신부(서울대교구 가좌동 주임)의 '건강한 신앙생활'과 김현남 수녀(서울성가소비녀회)의 한바탕 웃음으로 인도한 '행복여행'과 임병헌 신부(서울대교구 서초동 주임)의 '하느님의 자비, 용서와 사랑'의 강의가 이어졌다.

한국가톨릭 나사업연합회

한센병연구소 창립 50주년 기념 세미나

지난 6월 21일에 한센병연구소 50주년 창립 기념 세미나가 서울성모병원 의과학연구소에서 열렸다. 대한나학회 회장인 김난희 원장의 축사로 시작한 이 날 세미나는 채규태 교수(가톨릭 나사업 연합회 회장 및 한센병연구소 소장)의 환영사로 이어졌으며 한센병과 결핵에 대한 연구 발표와 한국 한센인 인권의 현주소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제2회 부산·경남 가톨릭 정착마을 한마음 잔치 및 성심원 개원 52주년 기념 초청 연극 「바보 추기경」 공연

부산, 경남 정착마을 한마음 잔치가 2011년 6월 28일 산청 성심원에서 열렸다. 이 날 부산, 경남 정착마을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앙과 친목을 돈독히 했다. 또한 산청 성심원 개원 52주년을 맞이해 연극 바보 추기경을 28일~30일 3일에 걸쳐 공연하여 부산, 경남 정착마을 한마음 잔치에서도 함께 관람하며 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고뇌와 사랑, 음성과 몸짓을 우리 앞에 다시 모시어 우리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전국 시각장애인 레지오 마리에 피정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회장 윤재송)는 지난 5월 4일부터 5일까지 광주 적십자청소년수련원에서 전국



시각장애인 레지오마리에 피정을 실시했다. 광주가톨릭 시각장애인선교회 주관으로 열린 이 행사에는 전국에서 레지오 단원과 일반 회원, 봉사자 등 총 163명이 참석했다.

첫날 찬양과 회합, 각 교구 선교회별 레지오 활동보고가 있었고,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 조영대 신부의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소서' 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었다. 둘째 날, 고해성사에 이어 광주선교회 담당 사제인 윤종윤 신부 집전의 미사를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각 교구 선교회 소속 레지오 단원과 회원들의 영성이 강화됨은 물론, 레지오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며, 지속적인 교회의 지원으로 시각장애인 신자들의 신앙 생활은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점자 레지오 마리에 교본' 발행사업 지원 결정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회협의회는 '점자 레지오마리에 교본' 발행과 전례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점자 성경' 추가 보급을 위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 지원 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지원금을 수령하여 사업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협의회는 주교회의의 지원을 받아 2006년 '점자 성경'을 발행했고, 2008년에는 '점자 가톨릭기도서'와 '점자 가톨릭성가', 전례서 소프트웨어 '온소리 로고스' (점자 정보 단말기용으로 성경, 기도서, 성가 수록)를 개발했으며, 2009년 '점자 예비자 교리서' '점자 기도공동체 성가', 2010년 '점자 상장예식'을 발행하고 온소리 로고스를 업그레이드하여 전국의 시각장애인 신자들에게 보급해 왔다.

이번 '점자 레지오마리에 교본' 발행사업으로 시각장애 레지오 단원들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

한국가톨릭여성협의회(회장 배순희)는 지난 6월 27일 대전교구 더리스회의실에서 상반기 이사회 모임을 가졌다. 이 날 열린 이사회에서는 앞으로 생명수호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 각 교구별로 실천 사항을 정해서 하반기 이사회 때 발표하고 공동으로 실천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

2011 한국가톨릭의사협회 피정 및 제43차 총회 신임 회장 조건현 암브로시오 선출

한국가톨릭의사협회(회장 조건현)가 지난 4월 2일부터 3일까지 1박 2일간 수지성모교육원에서 개최한 제43차 총회에서 조건현(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형제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감사에는 양영철(광주대교구 가톨릭의사회 회장) 형제와



신임 조건현 회장



고영초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회 회장) 형제를 선출했다. 이날 총회는 한국가톨릭의사협회가 주최하고 서울대교구 가톨릭의사회에서 주관하여 피정과 함께 이뤄졌다.

한편 한국가톨릭의사협회는 가톨릭윤리와 그리스도적 가치관을 몸소 실천하고 의료선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 배가운동에 나섰다. 신임 조건현 회장은 “현재 각 교구 및 본당 그리고 병원 별로 가톨릭의사들의 모임이 있으나, 아직도 많은 가톨릭 신자 의사들이 가톨릭의사 모임의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사로서의 소명을 감사히 여기고, 실제 우리가 근무하는 의료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더 나아가 세계 어느 곳이든 하느님의 뜻대로 필요한 곳에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하는 삶을 일구어 내기 위하여 체계화된 모임이 필요하고 따라서 이러한 회원 배가 운동은, 신자로서의 마음을 되새기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영광스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회원배가 운동의 의미를 설명했다.

한국가톨릭의사협회는 1947년 시작된 ‘방지거 사베리오회’, 1965년 창립된 ‘서울 가톨릭의사회’에 이어 전국 각 지역의 가톨릭 의사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1969년에 창립되었다. 이후 한국가톨릭의사협회는 활발한 의료선교와 피정을 비롯한 신앙생활을 매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으며, 1980년에는 제7차 아시아 가톨릭의학회를, 2002년에는 제21차 세계 가톨릭의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회원배가 운동과 관련한 문의는 한국가톨릭의사협회 사무국 ☎02-2258-8292로 하면 된다.

아보며 청년단원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찾고 지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성지순례를 통해 신앙의 못자리로 일컬어지는 솔피성지를 둘러보고 합덕성당에서는 주임신부로부터 합덕성당이 121년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에는 순교의 산실이었던 설명을 들었다. 이어 청년단원들에게 교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말씀으로 순례를 마치고 돌아왔다.



소년 프레스비디움 성인간부교육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는 레지오 마리에 정신으로 소년 프레스비디움 간부직을 수행하는 성인간부들의 희생과 봉사정신을 격려하고 이번 피정을 통하여 영성을 심화하여 소년 레지오 확장과 활성화에 기여하고 미래 교회발정을 꾀하고자 소년 프레스비디움 성인간부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주도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피정을 했다.

레지오 마리에 광주 세나투스

청년단원교육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단장 김남철)에서는 5월 22일 청년단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지순례를 했다. 해미성지와 해미 읍성을 시작으로 여행이 아닌 순교자들의 삶에 대한 사색과 묵상으로 성인들의 신앙을 들





레지오 마리에 대구 세나투스

세나투스 주관 성모의 밤 개최

계절의 여왕이며 성모성월인 5월 첫날 밤 대구 세나투스(단장 방경홍)는 늦은 7시 30분부터 교구청 내 성모당에서 성모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성모님께 바칩니다'란 주제 아래 신심행사와 2부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주례의 미사 봉헌으로 진행됐다. 1부 행사는 묵주기도에 이어 각 꼬미시움 별 꽃, 초 봉헌, 어머니께 드리는 글 낭독, 성가대의 특송 등으로 이어져 성모님께 대한 레지오 단원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2부 미사 강론을 통해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는 "올해는 교구설정 100주년 해이다. 교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신 단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있을 100주년 경축행사와 2차 교구시노드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단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환길 대주교와 하성호 사도요한 세나투스 담당사제를 비롯한 교구 사제단, 방경홍 가브리엘 세나투스 단장을 비롯한 레지오 단원 2,8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뤘다.



제141차(포항죽도 특차) 기본교육, 제8차 영성심화교육 실시

대구 세나투스는 평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세나투스 주관 1박 2일 교육에 참가할 기회가 적어 아쉬워하던 포항지역 단원들을 위한 특차 기본교육을 개최했다. 이 교육은 6월 4일~5일 포항 칠포 파인비치호텔에서 열려 189명의 단원이 수료했다.

포항 죽도 꼬미시움의 요청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주회합 순서, 레지오마리에 비전, 활동의 예와 발법, 레지오마리에 관리 운영, 레지오의 나아갈 길 등의 레지오마리에 단원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하성호 사도요한 담당사제와 방경홍 가브리엘 단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안상덕 다니엘 전 마산 레지아 단장이 강의를 담당했다. 또한 대구교구의 역사(이찬우 신부), 가톨릭교회의 구원(전광진 신부) 관한 영성강의가 곁들여졌으며, 첫째 날 저녁에는 자신의 신앙생활과 레지오 활동을 되돌아보며 반성하는 작은 피정도 마련됐다. 김창호 죽도 꼬미시움 단장은 "그동안 거리가 멀어서 교육기회를 자주 갖지 못한 단원들을 위해 교육을 마련하게 됐다. 단원들이 교육을 매우 진지하게 받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자주 세나투스 주관교육을 유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는 가장 평판이 좋은 영성심화교육도 포항에서 개최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대구 세나투스는 6월 18일~19일 제8차 영성심화교육을 개최했다. 대구대교구의 대표적인 순교성지인 한티성지 내의 피정의 집에서 개최된 이 교육은 단원들의 영성생활 고취와 간부 자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실시했으며, 125명의 단원이 수료했다.

유교, 불교, 개신교, 신흥종교 등 타 종교의 이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무, 대구 순교자들의 영성, 올바른 성모신심 등 단원들의 영성생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선교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였으며, 저녁시간에는 묵상과 자기성찰의 시간도 가졌다.



평협회장 단상 - 목주기도 :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들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다”
“거룩한 목주의 기도를 드리면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다.”

1917년 파티마에 발현하신 성모 마리아의 이 말씀은 우크라이나의 신자들이 박해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신앙이 새롭게 되살아나고

있는 지금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오블라티 수도회 파블로 비슈콥스키 신부(o.m.i)는 말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수많은 실례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일화 하나를 그는 소개합니다.

1991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오블라티 선교 수도회의 선교사 일행이 흐니반(우크라이나 중남부)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주교는 그들에게 한 스무 명 가량의 노인들만이 나오고 있는 작은 본당을 맡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토 면적 60만3천여 km²에 인구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유럽권 러시아 남서부에 있는 이 나라는 영토로 볼 때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가 됩니다. 소비에트 연방(蘇聯;1922-1991) 설립 당시 러시아, 백러시아, 자카포카스와 함께 연방을 이루며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다시 출발했던 이 나라는 나중에 위성국가 가운데 하나였으며, 아시아에 속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지난해 2010 서울아시아가톨릭 평신도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편집 일을 돕고 있는 콘솔라따(Consolata; 위로자의 성모님) 선교수도회 잡지와 다른 자료에 따르면 20세기에 이 나라 백성들은 공산당 정부의 혹독한 탄압에 시달렸고, 우크라이나 정교회와 함께 우크

라이나 가톨릭교회 또한 모진 박해를 받았습니다. 1917년에서 1991년 사이 구소련 지역 내에서는 3만 개의 성당이 파괴되었으며, 다른 많은 성당들도 탱크와 트랙터,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거나 무신론 주창자들의 박물관으로 전락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제들이 남녀 수도자, 평신도들과 함께 체포당해 강제노동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보관된 문헌들에 따르면 구소련의 수용소와 감옥에서 살해당한 사제들의 수효가 약 4만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제직을 배척하게 하려고 이들은 달리는 열차 밑에 던져지고 감옥의 벽에 못 박혀 죽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음식으로 제공되는 등 옥중에서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거나 전기의자 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밀리에라도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믿음을 생활하거나 적어도 어느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최소한의 신앙 생활을 하고자 했던 1000만 명 가량의 평신도들도 똑같은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르(Bar)에서 파블로 신부가 주임사제를 맡고 있던 본당에서만도 9,367명의 신자들이 공산당 정부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기록(비니트차 주 정부 문헌실, 우크라이나, F - D 94, op. 12, spr. 54)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자유가 없었고 따라서 신앙생활도 쉽 리 할 수 없었던 때라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처지에서도 오블라티 선교사들은 어떻게 하면 신앙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알고 있었으니, 그들의 회칙과 규칙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회원들이 어느 지역으로 파견되든지 간에, “모든 악에 대한 하느님의 최후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시는 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 마리아께 진정어린 헌신을 하도록 힘쓰다”(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의 오블라티 선교수도회 회칙과 규칙, 로마,

2000, K. 10)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매일같이 성모님이 그려진 커다란 이콘화를 가지고 아직 하느님을 알지 못하던 가족들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 오블라티 선교사들이 맡아 새로 지은 이 본당에 나오는 신자 수는 스무 명이 아니라 약 6백 명에 이르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파블로 신부가 아직 신학생이었을 때, 성탄절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역의 젊은이들과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 화해의 예식을 거행하던 중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정치계 간부의 딸인 헬레나라는 처녀가 불쑥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톨릭교회에 다니고 싶어 했으나 부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외출을 금지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부모는 딸이 성당에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나이트클럽 같은 데를 다니며 마약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편이 더 낫다고 여기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헬레나에게 있어 보다 큰 문제는, 부모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이해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5년 동안이나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 가정을 방문하셨던 그 성모님의 이콘화를 부모가 자기들 집에는 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본당의 모든 식구들이 헬레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헬레나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찾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성모상을 집안에 들여놓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모상이 누군가의 집에 도착하면 모든 가족은 물론 이웃들도 함께 모여 성모상 이콘화 앞에서 철야기도를 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사제는 교리와 거룩한 묵주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그 집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상황이 좀 어려웠던 터라 교회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마침 우크라이나 사람이었던 파블

로가 기도 예절을 주관하게 하기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 자신을 성모님께 맡기면서 교리문답을 위해 이 가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헬레나의 부모가 성모상을 받아들였다는 데 대한 놀라움과 호기심에 많은 사람들이 헬레나의 집으로 모여왔던 것입니다. 기도를 마친 후 파블로는 참석자들을 향해 몸을 돌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에 나갑니까?”

제각기 신앙을 가진 이유를 댔습니다. 다들 신앙을 가지는 것은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대답을 계속하는 동안에 헬레나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내심 이렇게 말하며 정성을 다해 기도 드렸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집안 가족들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교리문답을 마치고 거룩한 묵주의 기도를 바칠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박해자였던 헬레나의 아버지에게로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묵주기도는 집안의 가장이 선창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여기 기도서를 받으세요. 주님의 기도를 한번 바치고 그 다음 성모송을 열 번 바치도록 하십시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으나, 계속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사람의 입에서 신앙의 기도문이

절로 새어 나올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심정을 가다듬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으나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신비로 이어갔습니다.

모두가 기쁨으로 눈물을 지었고, 다음날 아침 헬레나의 아버지는 성모상 이콘화를 들고서 온 도시를 돌고 무신론자인 자기 어머니와 동생의 집에도 들렀습니다. 헬레나의 부모는 동생 슬라브코에게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며 행복하고 즐거워하잖니. 너도 헬레나하고 같이 미사에 참례하도록 해라.”

그리고는 부모들도 주일마다 성당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주기도는 무신론자이자 그리스도교 박해자

였던 헬레나의 가족 모두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던 뒤로 파블로 신부는 매일처럼 목주기도의 모든 신비를 묵상하며 바치게 되었습니다. 성모송 한 구절이 자신의 모든 다른 말보다, 강론보다, 자신의 모든 능력보다 더 강함을 그는 보았습니다.

이 나라 우크라이나에서 금년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남성 평신도 단체이며, 우리 한국평협도 회원으로 가입한 ‘우눔 옴네스’(UNUM OMNES) 총회가 열립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같이 ‘모든 이를 하나로’ 일치시켜 하느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원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최홍준 파비아노



이번호 인터뷰(인)은 지난 6월 한국도입 55주년과 한국이사회 승인 50주년을 맞이한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정해정 회장을 만나봤다. 정해정 회장은 한국평협 사무국을 방문해 인터뷰에 응해주었다.

1. 지난 6월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도입 55주년 기념식, 한국이사회 승인 5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먼저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가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빈첸시오회는 정의와 사랑의 정신 안에서 개인대 개인의 직접적 관계를 통해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주는 국제 가톨릭 평신도들의 형제적 단체입니다. 보통 7~10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매주 주회를 통해 자신들의 일상생활과 가난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의 성사생활, 기도, 성서묵상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회는 바티칸의 인가와 교권으로써 운영이 되는 단체입니다.

저희회는 함께하는 여정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이거나 영성적으로 가난한 이웃 형제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 병원안내, 반찬봉사, 시설안내, 소년소녀가장, 노숙자, 무료급식, 특히 도움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가갑니다. 사회복지사업이 포괄적으로 종교와 인종,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모든 분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 50년을 지내는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활동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빈첸시오회 활동의 한국어 교본을 만드는 일을 중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교본은 호주 등지에서 들여온 영어교본을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과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빈첸시오회는 178년 동안 세계 총회에서 3번에 걸쳐 회칙을 변경했습니다. 새로운 회칙에 의해 우리 실정에 맞는 우



리 교본을 제작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양성자교육을 실시하여 회원들이 보다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국내활동 뿐 아니라 해외활동도 하고자 합니다. 우리교회의 미래인 청년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개발도상국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개발국의 가난을 함께 하기 위한 청년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에 이어 내년에는 몽골에 봉사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3. 회장님, 독특한 헤어스타일이 눈에 띕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이 헤어스타일은 영화배우 스티븐시걸을 닮았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제 아내가 완성해준 스타일입니다. 20년이 넘도록 고수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삼손’ ‘꽁지머리’ 등의 재미있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제가 전화통화할 때 ‘정 요셉’입니다 하면 누군가 하다가도 ‘꽁지머리 정 요셉’이라고 하면 다들 알아차리십니다. 대전교구장이신 유홍식 주교님도 저에게 꽁지머리라고 하십니다.

제가 운동(레슬링)을 오래해서 몸이 다져진데다 헤어스타일이 독특해서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갖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를 만나보시면 매우 순한 양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오래전엔 술도 많이 먹고 주일에만 성당에 나가는 주일신자였지만 결혼과 함께 아내를 만나면서 술을 끊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삶의 은인인 셈이죠.

4. 한국교회에서 빈첸시오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요?

청주교구장이신 장봉훈 주교님께서서는 지금까지의 빈첸시오 활동을 보시면서 기적에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빈첸시오 활동을 하다 보면 각 교구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특히 활동의 성격에서도 사회복지회 혹은 레지오 마리아 활동 등과 맥락이 함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교구와 단체 사이에 양보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당에서는 사회복지 예산은 따로 편성하지만 빈첸시오 활동은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합니다. 그러다보니 비슷한 성격의 단체들 간에 오해와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도울 것은 도와가면서 상호보완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의 주보성인인 빈첸시오 성인께서는 “우리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어 안아야 하고, 이 세상에 사랑의 불을 놓으러 오신 하느님의 아들이 행하신 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 이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달리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맘 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5. 국내 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해외에도 원정 봉사활동

등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차원에서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등으로 해외 청년 봉사활동을 다녀왔는데 청년들의 반응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해외 봉사활동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됩니다. 보통 5박 6일 일정으로 해외 봉사활동을 나가는데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더 견고히 다지게 됩니다. 봉사하러 간 청년들도, 도움을 받은 이들도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매년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조금 힘이 듭니다. 내년엔 몽골이나 캄보디아로 갈 예정인데 주위에서 많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활동은 어느 순간 활짝 피었다가 갑자기 시들어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세상 속의 평신도로서 빈첸시오의 양성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빈첸시오 회칙 3조 12항에 “회원과 임원을 양성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빈첸시오회의 필수적인 임무이다. 교육을 통해 빈첸시오회에 대한 회원들과 임원들의 지식과 양성을 심화시키고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첸시오회는 회원들에게 더 높은 단계의 교육을 제공하여 가난한 사람들의 문화적, 사회적 수준의 향상을 도울 수 있습니다. 곧 변화되는 사회 안에서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하며 우리 자체에서(교구이사회, 지구, 협의회)에서 새로운 회원들을 교육시키고 한 단계 높은 봉사활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7. 회장님께서 빈첸시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에게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3년 전에 본당에서 환경운동을 했었습니다. 저희 본당 대건회에서 ‘자원재활용운동’을 했었는데 잡지, 신문, 박스 등



을 가지고 오시면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것이었는데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주임으로 계시던 최시동 요한 신부님께서 교구청 사무처장으로 가셔서 새롭게 환경분과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본당에서 활동하면서 복지분과장을 맡았고 자연스럽게 빈첸시오 활동을 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빈첸시오회에서 한 주간 있었던 활동사항을 서로 주고받으며 정답게 회합을 하며 실천으로 옮기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 한국이사회 회장까지 맡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더 열심히 활동하라고 과분한 직책을 맡겨주신 것 같습니다.

8. 지금까지 교회활동을 하면서 들려주고 싶은 재미있는 일화나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빈첸시오회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13-14년 전인가 활동하던 당시에 연고가 없던 교우가 뇌종양으로 돌아가셔서 병원에 간 일이 있습니다. 저희는 연고 없이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돌봐드리고 상주의 역할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을 하려는데 워낙 없이 사시던 분이라 부족한 것이 많아서 회원들이 흩어져 찾고 있었고 어찌다보니 방에는 그분과 저만 남게 되었지요. 봉대로 턱 부분을 매어 드리려고 하는데 혼자이다 보니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로 묶었는데 너무 험령하게 잘 못 묶었고 다시 잘 묶는다는 것이 너무 짝 조여 버렸고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돌아가신 분 앞에서 얼마나 진땀을 흘렸는지 엉거주춤한 자세로 한참을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9. 평협활동을 통해서 역사도 오래고 큰 단체로서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가 다른 단체를 돕고 협력해서 사도직 활동을 더 잘해나가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기도 중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참 많지만 2% 부족한 것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기도합니다. 우리 빈첸시오안은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을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 찾아가 섬기며 소박하고 겸손과 온유, 교행과 열정을 덕목으로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을 만난다는 희망으로 봉사합니다.

평신도사도직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러 단체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사이 좋게 활동을 하면 하느님 보시기 참 좋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빈첸시오회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영성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느 곳이든 찾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답: 한국평협 신동수 과장



너와 나, 무엇이 다른가

‘회장님’ 천지다. 문턱을 넘어서서부터 수 명에서 수십 명의 ‘회장(會長)’ 을 만날 수 있다. 바로 한국교회 안에서 말이다. 게다가 00회장 정도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명함 내밀기가 쉽잖은 분위기가 존재한다.

물론 이들 ‘회장님’ 들의 의미가 일반 사회에서 통용되는 것과는 다르다. 희생과 봉사의 대표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각 단체 및 모임 회장에 대한 인식은 다소 씩씩하다. ‘좀 가진’ 사람이 아니면 회장직을 맡기도, 맡기기도 어려워하는 모습을 왕왕 볼 수 있다. 스스로 일종의 ‘특권계층’ 인양 행동하거나 혹은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다.

최근 한 신자로부터 문의전화를 받았다.

남편 직장 관계로 이사를 자주 다니는 편인데, 공교롭게도 벌써 세 번째나 새 성당을 짓는 본당 관할로 이주를 하게 됐다고 한다. 최근엔 신축기금 약정서가 부담스러워 거절했다. 그랬더니 “그 정도 규모의 아파트에 살면 00 정도의 기금은 내야 한다” “내가 가진 돈은 원래 하느님의 것이다” “내가 신앙생활을 교만하게 하는구나” 등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돈 좀 낸’ 신자들은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며, 그에게 “기금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나무라는 투로 한 마디씩 하고는 했다는 것이다. 이 신자는 또 다른 죄책감과 미움으로 거의 우울증을 앓을 지경이라며, 고해성사 신부님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중심원리는 갈수록 ‘돈’ 과 ‘힘’ 으로 치중되는 것이 현실이다. 개개인의 사람도 돈과 힘을 잣대로 평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리고 그 논리가 교회 안에서도 질게 묻어나는 것을 외면할 수 없다. 자본주의의 폐해와 물질중심주의의 만연으로 교회 안에서도 획일화된 이른바 ‘스펙’ 이 요구되는 것이다.

몇몇 철학자들은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일종의 원동력을 ‘부러움’ 이라고 지적한다. 이 부러움으로 너도 나도 돈을 얻고 힘을 얻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또 다른 원동력은 ‘부끄러움’ 이라고 지적한다. 무조건적으로 남과 비교해, ‘이 정도 자리는 차지해야 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집에선 살아야 하는데’ ‘이 나이엔 이 정도는 가져야 하는데’ 등등의 기준을 두고, 그 수준의 돈과 힘을 갖추지 못하면 부끄러워 한다는 것이다. 신앙생활에서조차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비교와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도리어 알게 모르게 그릇된 부러움과 부끄러움을 조장한다.

또 다른 맥락에서는 교회 안에서조차 정의·윤리 결핍 증후군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적 기회 불균등은 물론, 공동선을 위한 연대 자체를 외면하는 양극화 현상은 정의와 윤리 등의 부재에서 대부분 비롯되기 때문이다.

세속화된 현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잊곤 한다. 지나치게 이완된 신앙생활과 윤리의식이 정체성의 상실을 초래한 결과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이에 대해 단호한 응답을 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실제 한국 갤럽에서 “왜 종교를 믿는가?” 라는 질문에 60%를 훌쩍 넘는 다수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라고 응답했다. 또한 현재 종교를 갖고 있는 이들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나?” 는 질문에 사랑과 믿음 등의 가치보다 ‘건강’ 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마음의 평화를 갈구하는 이유 또한 지나친 경제와 물질중심주의에서 야기되는 정신적 빈곤함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선택이다. 즉 신앙인과 비 신앙인의 삶에 태도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기성세대로 올라갈수록 ‘때’ 가 많이 묻어 삶의 태도를 바꾸기가 쉽잖다는 것이다. 교회 활동에도 직장·사교모임에서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경쟁사회에서 유용한 가치들을 신앙생활에서 적용하고, 윤리적 가치를 주관적인 태도와 감정에 따라 수용하는 경우가 더해지고 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사회 쳇바퀴 속 일상에 파묻혀 지내다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성찰하고 실현에 나서기

도 힘겨움을 느낄 때가 많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행복에 대해 말해도 잘 들리지 않을 때도 많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계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이쪽저쪽 다리를 모두 걸치고 앉아 이쪽이 만만하면 이쪽으로 기울고, 저쪽이 만만하면 저쪽으로 기울여갈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윤리적 가치관이 그릇된 사회 흐름에 휩쓸려 가면 상대적인 진리와 편협한 사고방식 등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결국 선택의 문제다. 다행히 우리에게 뚜렷한 기준들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회는 신앙인들이 삶터에서 고민하는 돈과 이윤추구, 다양한 정치사회문제 등에 대해 한 번도 말하기를 멈춘 일이 없다. 개개인 뿐 아니라 사회 그 자체는 교회가 뿌리를 둔 터전이자 복음화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교리, 사회적 가르침들이다.

신앙인으로서의 ‘스펙’을 쌓기 위해 꼭 알고 실천해야할 내용들이다.



주정아 스텔라

서울평협 홍보위원회 위원, 가톨릭 신문사 취재 팀장

알림

◎ 저작권 무단 사용에 대한 주의 요망 ◎

최근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보내온 공문(중협 제11-39호)에 따르면 교회 안팎으로 음악이나 사진 등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저작권위탁관리협회나 법무법인 등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그 합의 대가로 저작권 사용료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저작권법은 <친고죄>로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가능(저작권법 제140조)하므로 저작권위탁관리업체(국의 포함)들이 이러한 점을 악용, 현재 저작권 무단 사용을 묵인하다가 추후에 저작권료를 일시에 청구하는 이른바 ‘저작권료 폭탄’을 노리기도 합니다.

현재 개신교 한국찬송가공회의 음원 저작권 관리를 위탁받은 (주)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O)에서는 이미 개신교의 일부 대형교회와 방송언론매체에 저작권료를 요구한 바 이싸고 하며, 전국 성당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무단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개신교의 찬송가(CCM)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교회 안에서 음악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음원 저작권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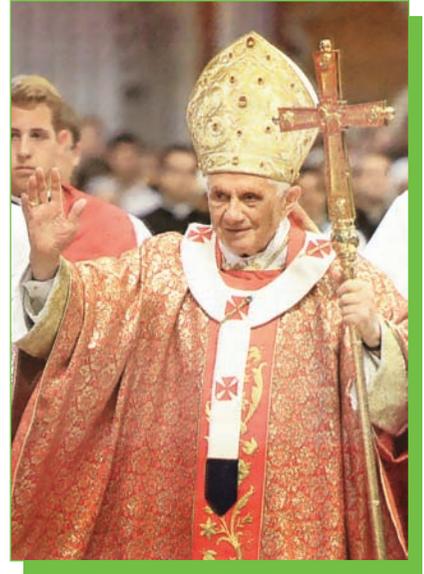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행하는 성령강림대축일은 부활시기를 마감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신비는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도들 위로 성령께서 내려오신 강력한 성령강림으로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성령강림은 교회의 세례, 성령으로 받은 교회의 세례성사입니다. (사도 1,5)

사도행전에 따르면, 성령강림의 날 아침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제자들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사도 2,2-3)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갑작스런 바람의 모습으로 제자들 위로 내려오시어, 당신 사랑으로 내적으로는 육적인 존재의 마음을 바꾸고, 외적으로는 드러난 불의 혀 모양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불의 형상을 통하여 하느님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윽하게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의 「복음서에 대한 강론」 XXX, 1: CCL 141, 256).

하느님의 음성은 사도들이 말하는 인간의 언어를 성스럽게 하며, 사도들은 ‘다양한 언어로’ 단 하나이신 거룩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입김은 우주를 가득 채우고, 믿음을 태어나게 하며, 진리로 이끌고, 못 민족들 사이에 일치를 이루게 합니다. “그 말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사도 2,6.11)

복자 안토니오 로스미니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 강림의 날에 하느님께서 는 당신의 사랑의 법을 제정하시어... 성령을 통하여, 돌판이 아니라 사도들의 마음에 새기셨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를 온 교회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안토니오 로스미니의 사상에 따른 교리... n. 737, Torino 1863)



신앙고백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는 성자를 통하여 성부와 합하여지며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계시를 완성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의 모습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발하며, 성화시키고, 단절을 없애고, 죄로 말미암은 혼란을 해소하는 권능을 지닙니다. 형체가 없고 형질이 없으신 성령께서는 선에 따라 역사하고 행동하도록, 천상적인 부를 일으키시고, 생명체들을 지탱하십니다. 이성적인 빛이신 성령께서는 기도에 의미를 부여하고, 복음화 과업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기쁜 소식을 경청하는 이들의 마음을 불타게 하고, 그리스도교의 예술과 전례음악에 영감을 줍니다.



친애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세례의 순간에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외아드님이신 성자의 모습을 본받아, 분명한 자각과 원의를 지닌 하느님의 자녀로 살도록 허락해주시니다.

죄를 용서하는 권능 또한 성령의 선물입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부활하시던 날 저녁 사도들에게 나타나시어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20,23)



교회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계명으로 살아가며, 위로자이신 파라클리토 성령의 불멸의 역사하심으로 모든이에게 “예수께서 주님이심”을 선포하도록, 성령의 성전이신 동정녀 마리아께 교회를 맡깁시다.

제16회 우리 성가 노랫말 · 작곡 공모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우리성가의 창작과 보급에 이바지하기 위해 아름다운 우리말로 만들어진 노랫말과 성가곡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서에 잘 어울리는 성가의 창작과 육성으로 신자들이 하느님과 더욱 일치하도록 하며, 전례의 토착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우리성가 작곡공모에 역량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노랫말 공모

- 응모마감 : 2011년 9월 30일
- 노랫말 내용 : ① 복음 선교와 관련한 내용
② 성경과 전례서를 근거로 하며, 신앙적 영감을 키울 수 있는 것
③ 일정한 운율을 갖추어 작곡하기 쉬우며 2~3절까지 부를 수 있는 길이
④ 미사전례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
- 응모자격 : 가톨릭 신자 또는 예비자
- 시상 : 최우수상 1명 / 상패와 상금 100만원
우수상 2명 / 상패와 상금 50만원
장려상 3명 / 상패와 상금 30만원
- 접수 : 홈페이지(www.clak.or.kr) 응모게시판 ※ 접수는 응모기간 동안 응모게시판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 작곡 공모

- 응모마감 : 2012년 3월 31일(당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당선작 발표 : 2012년 5월 중 발표
- 출품 요건
 - (1) 1인 1곡 출품 (가톨릭 신자 및 예비신자)
 - (2) 노랫말은 제16회 우리성가 노랫말 공모 선정작 중에서 자유로이 선택
*노랫말은 본 협의회 홈페이지 - 주요활동>우리성가 노랫말공모>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3) 가톨릭교회 전례에서 신자들 또는 성가대가 어렵지 않게 부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2성부 이상의 합창곡
*선정곡은 2012년도 제8회 서울대교구 성가합창제에서 각 본당 성가대의 지정곡으로 연주됩니다.
 - (4) 오르간 반주곡(무반주 합창곡은 3성부 이상이어야 함)
 - (5) 악보와 1절 이상 연주한 반주녹음(MR) 제출
- 시상 : 최우수상 1편 / 상패와 상금 200만원
우수상 2편 / 상패와 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 3편 / 상패와 상금 각 50만원
- 보낼 곳 : (100-809) 서울 중구 명동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사무국
- 문의 : ☎ 777-2013 · 757-7851 / FAX 778-7427
www.clak.or.kr clak@catholic.or.kr

제 8회 사진공모전

사랑·생명 가정

● 내용. 인간의 삶과 가정을 중심으로 한 사랑과 생명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한 "사랑 생명 가정"을 표현한 작품 (컴퓨터그래픽 및 디지털합성작품, 기발표작, 유사작품은 제외됨)

● 응모자격. 국내외 (비신자 포함) 제한없음

● 규격. 11X14 흑백 및 칼라(디지털 포함) 규격통일, 장정불요

● 출품수. 1인당 5점 이내 (출품료 : 없음)

● 출품요령. 출품표를 작품 뒤에 부착 (전부기록바람)

● 출품표.

이름	
나이	
우편번호	
주소	
집 직장 전화	
휴대전화	
E-mail	

*기록이 충분치 못할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접수마감. 2011년 10월 6일까지
(마감당일 우편소인 유효함)

● 접수처. (100-809)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회관 510호 서울평협 T.02-777-2013
(파손에 주의할 것)

● 심사발표. 2011년 10월 13일

● 시상식. 2011년 10월 26일 (수요일) 오후 5시
평화화랑 (가톨릭회관)

● 전시장소. 평화화랑 (가톨릭회관)

● 전시기간. 2011년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 시상내역. - 대상 1명 (상패와 100만원)
- 우수상 2명 (각 상패와 50만원)
-佳作 5명 (각 상패와 30만원)
- 입선 42명 (상장과 기념품)

● 특기사항. - 입상 입선작 : 입상, 입선작의 저작권은 본회에 귀속되며 초상권에 관한 부분은 출품자 책임.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낙선작 : 전시기간 중 전시장에서 배포반출하며 수도권 외 타 지역은 개별우송함.
- 필름원판 제출 : 입선작(대상, 우수상,佳作)은 10월 23일까지 필름원판 또는 디지털 사진은 CD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상권(상금포함)은 취소된다.

주최  서울대학교구 평신도시도직협의회

주관  서울대학교구 가톨릭사진가회

협찬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서울대학교구 사목국 가정사목부

 PBC 평화방송·평화신문

 가톨릭신문사



한국평협이 우리 시대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작은 그리스도', '숨은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2011년도(제28회) 가톨릭대상 후보자 추천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는 1982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사랑, 정의, 문화부문에 걸쳐 가톨릭대상을 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복음적 활동으로 현세질서에 이바지한 모범적 시민에게 시상함으로써 인간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가톨릭대상은 '작은 그리스도', '숨은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데에 뜻이 있습니다. 가톨릭대상은 가톨릭 신자에 국한하지 않고 종교와 종파를 초월하고 신앙에 관계없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랑, 정의평화, 문화 등 3개 부문으로 시상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시상 후보자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랑 · 정의평화 · 문화 3개 부문
- 대 상 : 종파를 초월한 55세 이상으로 개인 및 단체(사도직 단체 제외)
- 추 천 방 식 : 소정의 추천양식 또는 일반적인 추천양식
- 마 감 : 2011년 9월 30일
- 시 상 일 : 2011년 평신도주간 중
- 상 금 : 대상 500만원
- 추천서 양식 : 추천서 양식과 공적사항 추가제출
- 문의와 접수 : 우)100-809 서울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510호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사무국
☎ 02-777-2013, 757-7851 FAX 02-778-7427
이메일: clak@catholic.or.kr / 홈페이지 http://www.clak.or.kr

한국평협 인명록을 위해

평협人을 찾습니다.

한국평협에서는 1968년부터 각 교구 평협에서 활동한 평신도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활동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명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평협에서 활동하셨던 형제·자매님들은 활동내용을 알려주십시오.

[문의] 각 교구평협 사무국,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담당: 여효경 세실리아

